

★와디즈 펀딩 408% 초과 달성작★

★교보문고 2000~2024 21세기 클래식 50선 선정작★

『제5의 세계』 – 두 감각의 끝에서 시작된 찬란한 이야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와, 사라지지 않는 통증 속에서 살아가는 여자”



▪ 작품 소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태양과, 고통에 잠식된 이수. 서로의 세계를 건너며 감각과 존재를 다시 묻는 서사.”

『제5의 세계』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인물의 감각과 삶을 그린다. CIPA(선천성 무통각증)를 가진 태양, 그리고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앓는 이수. 하나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다른 하나는 지나가는 바람에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살아간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서로의 세계를 건너가며, 감각이라는 이름의 언어로 사랑과 상처, 존재와 생존을 마주하게 된다. 태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온 삶 속에서 타인의 고통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반면 이수는 사소한 접촉조차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병을 앓으며, 매일을 감각의 폭력 속에서 버텨낸다.

이 소설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다. 고통을 모르는 자와 고통에 잠식된 자. 그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직시하면서 감각, 존재, 기억,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 되묻는다. 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은, 감정과 감각을 회복하고 삶의 이유를 찾는 치열한 여정이다.

태양은 내담자인 ‘노을’과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의 기억을 되짚으며, 유년 시절 겪었던 유괴 사건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된다. 이수 또한 자신의 통증을 '살아 있음'의 증거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겪는다. 서로의 상처와 고통을 들여다보는 그들의 시선은 독자로 하여금 감정의 깊이를 새삼 느끼게 만든다.

■ 주제 및 메시지

- 『제5의 세계』는 감정과 감각, 존재와 존엄, 그리고 생의 선택을 핵심 테마로 삼는다.

  • 감각 : 고통이 없는 삶도, 지나친 고통도 인간 존재를 왜곡한다. 『제5의 세계』는 “감각이 없다”는 말이 가진 깊은 의미를 묻는다.

  • 감정 : 살아남은 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임을 보여준다.

  • 존엄 :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감각은 존엄이다. 죽음을 선택하거나 삶을 붙잡는 이유를, 치열하게 되묻는다.

■ 주요 특징

- 현실 기반 서사 : 희귀질환(CIPA·CRPS)을 중심으로 한 사실적이고 드문 서사.상담실, 병원,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의 감정 밀도 있는 전개.
- 다층적 공간 : 상담실, 병원, 일상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감정 밀도 높게 전개.
- 교차적 서술 : 과거 기억의 재구성과 현재 감정이 교차하는 서사 구조.
- 감정형 마케팅 : 인스타그램 릴스를 활용한 감각적 홍보로 독자 공감·참여 유도.

■ **굿즈 & 특별 구성 → 오프라인 한정 판매** 『제5의 세계』 굿즈는 오직 오프라인 북페어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다.

- **무료 증정 굿즈**
  - **『제5의 세계』 배경 엽서 2종 택 1**
  - **『제5의 세계』 표지 노을 배경 엽서**
- **한정 판매 굿즈**
  - **『제5의 세계』** 양장본 리커버 한정판
  - **『제5의 세계』 표지** 모니터 & 마우스 패드 겸용 디자인 굿즈
  - **『제5의 세계』** 아크릴 책갈피 (명대사 각인 포함)

- 『제5의 세계』 그립톡 3종 & 키링 3종 세트 (주요 캐릭터/임프린트 디자인)
- 『제5의 세계』 카드도서 및 월간단면 (NFC 포함 → 모바일 연동형 스페셜 에디션)

■ 숫자로 보는 『제5의 세계』

- 와디즈 펀딩 408% 달성 (초기 목표 50만 원 → 달성액 200만 원 이상)
- 출간 & 유통 확장
  - 밀리의 서재 단독 출간 → 교보문고·알라딘 정식 출간 확장
  - 교보문고 선정 : 21세기 클래식 50선 (2000~2024) MD픽
- 독자 반응
  - 『제5의 세계』 온라인 서평단 100명 4일 조기 마감
  - 가제본 서평단 300% 달성 (독자 참여 폭발적)
  - 인스타 릴스 평균 저장률 8~10% (높은 공감·재방문율)
- 수상/공모 성과
  - KOCCA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전 첫 출품작으로 본심 진출 & 후순위 2위 달성
- 행사 초청 & 참가
  - PPPXOZF Festival in Sungsu (2025. 07. 11 – 13)
  - 제2회 북앤콘텐츠페어 초청 in Busan (2025. 08. 22 – 24)
  - 책 읽는 ACC 북페어 선정 in Gwangju (2025. 09. 26 - 28)
  - 2025 파주페어 북앤컬처 한 권 마켓 선정 in paju (2025. 10. 26 - 28)

■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소개

🌍 다섯 번째 물 연대 프로젝트 『제5의 세계』는 단순히 문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 스펙토리는 물 문제 해결 기업 위시빌더와 함께 「다섯 번째 물 연대 프로젝트(The Fifth Water)」를 진행 중이다. “한 권의 책이 곧 한 사람의 식수”가 되는 이 프로젝트는, 책의 성과를 통해 얻은 감정과 기억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 작가 소개

이마엘은 이야기로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다. GOODTV, CBS 등에서 해외 다큐멘터리 조연출로 활동하며 케냐·탄자니아 등지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을 기록했다. 또한 KBS·Apple·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소수자와 청소년의 현실을 이야기로 풀어왔다.

성인기에 희귀난치질환으로 전신 마비와 극심한 신경통을 겪으며 감각의 경계를 몸으로 통과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제5의 세계』를 집필했다. 현재는 '존엄', '감정', '회복'을 주제로 한 후속 작품과 감정 기록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며, 청소년 독자와 감정 기반 독자층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차기작으로는『나 죽으러 갑니다_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인문 대중 철학서『기수역』, 그리고 새로운 소설『구름의 아이(가제)』출간을 준비 중이다.

■ 출판사 소개

스펙토리(SPECTORY)는 스펙(Spec)과 스토리(Story)의 합성어로, 존재의 조건과 개인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을 출판의 언어로 담아내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감정을 기억하는 출판사"를 표방하며, 존엄·생존·감각·관계에 대한 서사를 꾸준히 발굴한다. 첫 출간작『제5의 세계』를 비롯해, 감각과 존엄을 탐구하는 Between Life & Dignity, 감정적 실험과 언어 확장을 시도하는 Po;gue, 그리고 청소년 작가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담는 빛과 틈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임프린트와 라인을 운영한다. 스펙토리는 단순한 책의 제작을 넘어, 감정을 기록하고 존엄을 기억하는 출판을 지향한다.

📦 Upcoming Titles (기부 연대 프로젝트)

- 『나 죽으러 갑니다_노을지는 새벽을 그리며』: 죽음과 존엄을 주제로 한 감각적 서사.
- 『기수역(가제)』: 인문 대중 철학서, 자본주의와 삶의 태도를 해석하는 새로운 사유의 지도.
- 『구름의 아이(가제)』: 구름과 물의 영속성 안에서 감각, 회복을 중심으로 한 신작 서사.

■ 책 정보

- 도서명 :『제5의 세계』
- 지은이 : 이마엘
- 출판사 : 스펙토리 (SPECTORY)
- 형태 : 종이책 & 전자책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밀리의 서재, 와디즈)
- 분야 : 감성 픽션 / 청소년문학 / 감정철학 서사

- ISBN : ISBN 979-11-982250-7-8 (03810)

■ 문의 및 보도 연락처



Press Contact / 협업 문의

스펙토리 (SPECTORY)

담당 : 이마엘

E-mail : **ekgml31@icloud.com**

📌 『제5의 세계』 관련 릴스는 인스타그램(@dlakdp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용 이미지, 작가 인터뷰 요청, 독립 서점 연계 마케팅도 별도 협의 가능.